

“시정 최우선 가치 ‘청렴·공정’” 국제관광박람회서 순창 매력 알려

양충모 남원시장, 첫 간부회의 열고 시정 운영 방향·공직문화 쇄신 당부

남원시 관계자는 양충모 남원시장이 6일 오전 8시 20분 민선 9기 첫 간부회의를 열고, 시정 운영 방향과 공직문화 쇄신에 대해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부시장 등 간부공무원 65명이 참석했으며, 양 시장은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간부공무원부터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시장은 먼저 공직사회 내 인사 청탁과 출석지 문화 근절을 주문하며, “민선9기는 청렴과 공정을 시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며, “인사 청탁, 이권 개입, 사업 청탁 등 공정한 행정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 시장은 일방적인 지시와 무조건적인 복종, 직위를 앞세운 불합리한 관행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상호 존중과 소통을 바탕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당부하고, “시민 행복은 책상 위에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생각



양충모 남원시장이 6일 오전 8시 20분 민선 9기 첫 간부회의를 열고, 시정 운영 방향과 공직문화 쇄신에 대해 당부했다.

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적극적인 행정을 실천해 달라”고 주문했다. 당면 현안으로는 국가예산 확보와 재정건전성 회복을 강조, “7월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의 중요한 시기라며, 각 부서에서는 사업의 명분과 실효성, 자원 확보 방안,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앞으로의 행정은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를

찾는 행정, 보고를 위한 보고가 아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행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양 시장은 시민 민원을 대하는 공직자의 태도 변화를 당부, “시민의 민원은 공직자에게는 여러 업무 중 하나일 수 있지만, 시민에게는 삶과 생계가 걸린 절박한 문제일 수 있다며, 시민 입장에서 끝까지 해결하려는 자세로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장류축제·대표관광자원 등 집중 홍보

순창군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해 예비글로벌축제인 순창장류축제를 비롯한 지역 대표 명소와 관광정책을 소개하며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박람회는 KITS 조직위원회와 대한민국제방신문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전산업협회가 주관한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 관광 행사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관광 관련 기관·업체 등 약 300개 기관이 함께했다.

순창군은 예비글로벌축제인 순창장류축제를 비롯해 강천산 군립공원, 발효테마파크, 양지천, 음양분수 등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를 알리고, 관광 홍보영상과 안내책자를 통해 순창만의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였다.

특히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과 순창군 SNS·유튜브 구독 이벤트를 진행



하고, 참여자들에게 순창의 대표 특산품인 미니고추장을 증정해 현장을 찾은 방문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부스를 방문한 시민들은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과 SNS·유튜브 구독 이벤트에 적극 참여하며 순창 여행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디지털 플랫폼과 연계한 체험형 프로그램은 젊은 층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을 끌며 순창의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순창=이양원 기자

한득수 임실군수, 부서별 세심행정 강조

첫 간부회의 주제

한득수 임실군수가 취임 후 첫 간부회의를 주재하며 “부서별 업무 추진에 있어 명확한 방향성과 설정, 추진성과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강조했다.

첫 간부회의는 25개 실과소의 중간 업무 추진계획을 모두 보고받은 뒤 행정과 보건외로, 관광·홍보, 건축민원·노인일자리,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 의료원 운영방향 등 군정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개선방향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먼저, 행정분야에서는 읍·면 이장 선출과 관련하여 개선사항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 이어 문화체육과 관광정책과, 반려산업과의 업무 연계성을 함께 검토하여 연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군수는 “사람들은 여행지에서 가장 먼저 사진을 찍고, SNS에 추억을 남긴다”며 “조형을 설치보다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머물며 추억을 기록할 수 있는 포토존과 감성 공간을 충분히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득수 임실군수가 6일 취임 후 첫 간부회의를 주재했다.

종합민원 중 건축행정과 관련해서는 무허가 건축물의 현실적인 양성과 방안 마련을 주문했으며, 주민복지 분야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운영과 관련해 농번기 인력부족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의 적기 추진을 강조했다. 의료분야와 관련해서는 보건의료원의 혁신적인 변화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아울러, 12년 만에 새로운 군정이 출범한 만큼 기존 정책의 성과와 행정의 연속성은 이어가되, 변화가 필요한 분

야는 과감하게 혁신해 군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군정을 만들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한 군수는 “군민이 신뢰하는 행정을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변화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공직자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할 때 군민 동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군민의 삶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사람이 머물고 행복이 자라는 임실’을 실현하는데 모든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임실=진총영 기자

남원시의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

남원시의회(의장 한명숙)는 6일 제10대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갈 3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하고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는 초선의 마우천 의원, 자치행정위원회에는 재선의 오동환 의원, 경제농정위원회에는 재선의 이기열 의원이 선출되었다.

마우천 위원장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으며, 오동환 위원장은 “시정 전반기를 꼼꼼히 살피고 집행부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자치행정위원회가 되도록 이끌겠다”고 밝혔다.



마우천 위원장, 오동환 위원장, 이기열 위원장

으며, 이기열 위원장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원시의회는 오는 20일 제282회 임시회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지역특화재생사업 공모 선정

남원시가 2026년 지역특화재생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며 국비 150억 원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사업은 역사·문화·산업 등 지역의 고유한 자산을 활용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며, 남원시는 문봉읍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 주민은 물론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체감하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

제 활성화를 이끌 계획이다.

사업은 ‘미식과 휴양, 별빛이 머무르는 힐링 거점, 문봉! 이라는 비전으로 남원시 문봉읍 서천리 157-3번지 일원의 중심 시가지를 대상으로 추진, 총 사업비 약 279억 원(국비 150억 원 포함)을 투입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거점시설을 조성하고 역사·문화 도슨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지역 주민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군 관촌지구, 우리동네 살리기사업 공모 선정

임실군 관촌면 관촌지구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6년 우리동네살리기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관촌면 관촌리 일원에 2027년부터 4년간 국비 50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07억 원을 투입하여 관촌면행복누리원 신축으로 유희화되는 기존 관촌면사무소를 주민 공동체 거점시설인 어울림센터로 리모델링하고, 주차장 및 태양광 인프라 조성, 안심골목길 및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 등 생활밀착형 기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 회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실=진총영 기자

순창군, 폭염 대응 총력

순창군이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생수를 무료로 제공하고 주요 도로에 살수차를 운행하는 등 폭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지난 5월 1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를 폭염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총괄상황반 등 3개반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하며 폭염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우선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과 마을회관 172곳의 냉방기 점검을 완료했으며, 군민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편의시설도 확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행정인턴 모집

순창군이 지역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공직사회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진로를 탐색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행정인턴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행정인턴 모집 인원은 총 18명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복합·쌍치 등 원거리 거주자를 배려한 우선선발 3명과 일반선발 15명으로 나눠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순창군청 1층 행정과 인재개발교육팀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hyunjae9745@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